

C-20. Acellular dermal matrix를 이용한 박리성 치은염의 치료

이상민, 이학철

목동 예치과 병원

연구 배경

심한 발적, 표피 박리, 궤양을 동반한 박리성 치은염(desquamative gingivitis)은 특정 질환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치은 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치은 반응을 일컫는 용어이다.

편평태선, 심상성 천포창, 반흔성 유천포창, 만성 궤양성 구내염, 홍반성 낭창, 건선, 다형 홍반등의 자가면역 질환이 이에 포함된다.

병력 조사, 임상 검사, 조직 검사, 면역 형광 항체법으로 감별 진단을 하여야 하며, 국소인자의 제거로 구강 위생의 개선, 여러 가지 자극인자의 감소,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며 심한 동통을 수반할 경우 증상 개선을 위해 스테로이드 도포나 가글이 필요하다. 국소적 투여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는 스테로이드 전신 투여나 병소 내 투여를 시행한다. 그 외, laser 처치, 유리치은 이식술 등이 드물게 시행된다.

연구 방법 및 재료

SRP를 시행하고, 증상 개선을 위해 acellular dermal matrix (Alloderm®) 이식을 시행한 편평태선 증례이다.

연구 결과

SRP 후 증상의 개선이 있었으며, 이식술 시행 후 정상 조직 소견을 보였으며, 5개월 간 관찰한 결과 질환의 재발이 없었다.

결론

박리성 치은염은 완치가 힘든 질환으로 증상의 개선을 목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치은 이식술을 이용하여 질환의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